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0. 29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프랑스, 극우 정치인 '테러 모의 혐의'로 기소
  - 10.24 프랑스 사법 당국은 말레이시아에서 8세 소녀 납치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('21.6월)된 정치인 「레미 다이에」 (55세)를 극우 단체 조직원들과 국가 전복 등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
    - \* 「다이에」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센터, 5G 송신탑 등 공격시도 혐의로 기소
- 英, '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' 대비 테러 경계 강화
  - 10.24 외신은 영국 정부가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(10.31~11.12, 글래스고) 개최를 대비해 800명 이상의 테러위험인물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테러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
    - \* 이슬람 뿐 아니라 극우·극좌·환경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

#### 미주

- 美, 새로운 아프간 접근로 확보 추진
  - 10.25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△ 해당국 내 자국민·현지인 추가 대피 △ 대테러 군사·정보 작전 전개 등에 이용할 新아프간 접근로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영공 활용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
    - \* 파키스탄 역시 미국과의 대테러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
- 美, 시리아 알탄프 미군기지 '드론' 피습
  - 10.21 美 정부는 시리아 남부 국경 인근 소재 알탄프 미군기지가 2차례의 드론 공격과 수차례의 로켓 공격을 받았으나,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
    - \*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었으나, 美 정부 관계자는 이란을 배후로 추정

## 아 · 태평양

- 탈레반, 지난 1개월간 ISIS-K 조직원 250명 체포
  - 10.21 탈레반은 지난 1개월간 테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 중인 최대 경쟁조직 ISIS-K(호라산지부) 소속원 250명 이상을 체포하였으며, 이들 중 상당수는 아프간에서 탈옥한 죄수라고 발표
- 국립과학연구소, 테러 상황 대비 '실시간 화생방 관측 기술' 개발
  - 10.26 국방과학연구소(ADD)는 화생방 테러·전시 상황 발생시 오염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피해 대응책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'화생방 실시간 오염예측 및 대응 기술'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
    - \* 同 기술은 복잡한 도심지에서 오염 상황을 고해상도 실시간 표기 가능, △ 대피경로 확보 △ 신속한 제독작전 수행 △ 민·관·군 차원의 대응 가능

## 중 동

-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비정부기구(NGO)를 '테러단체' 지정
  - 10.24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내 NGO 중 6곳\*이 위조서류 등을 이용, 유럽·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'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'(PFLP)에 자금을 지원하고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'테러단체' 지정

\* 팔레스타인여성연합위원회(UPWC), 아다미어(ADDAMEER, 수감자 지원 단체), 비산 연구 개발센터(시민사회 단체), 알-하크(AL-HAQ, 인권단체), 디펜스 포 칠드런 인터내셔널 팔레스타인 지부(아동 인권단체), 농업위원회연합(UAWC) 등

## 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무장괴한 교도소 습격으로 800여명 탈옥
  - 10.24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요州에서 소속불명의 무장괴한들이 교도소 벽을 폭파하고 교도관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 습격 과정에서 재소자 837명이 탈옥, 262명은 체포되었으나 현재 575명이 도주 상태
    - \* 나이지리아는 몸값을 노린 납치와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만연

중국 천안문 광장 차량 돌진·폭발 테러

- '13.10.28, 중국의 수도 북경市 천안문 광장에서 SUV 차량 1대가 운집한 군중으로 돌진하면서 폭발, 차량에 탑승중이던 용의자 3명 등 총 5명 사망·38명 부상(중상 35, 경상 3)
- 中 공안당국은 사망한 용의자 3명의 신원에 대해 자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위구르族 「우스만 아이산」 과 그의 妻 및 母親이라며,
  - \* 신장 지역은 중국의 '화약고'로 불리는 곳으로 '09.7.5 한족과 위구르族간 충돌로 197명이 사망(1,700여명 부상)하는 등 유혈 충돌과 테러사건 빈발
  - 차량안에서 쇠몽둥이, 長劍, 휘발유통, '聖戰' 관련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발견되는 등 이번 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테러로
  - 용의자들은 군중으로 돌진과 동시에 차량 내부에 사전 비치한 휘발유 통에 불을 붙인 후 자폭했다고 발표
- 이틀 후(10.30),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위구르族 용의자 총 8명 중 현장에서 사망한 3명을 제외한 5명 전원을 체포
  - \* 신장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중인 '東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'이 사건 배후를 자처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해외언론들은 同 사건은 중국정부의 위구르族 탄압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

**< 東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(ETIM) >**

- (목표) 중국 신장지역內 이슬람 국가 건설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UN('02.9), 미국('02.9), 영국('16.7), 중국('03.12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압둘 하크 투르키스타니」 ('03.11 선임)
- (결성·규모) '97.8월·아프간 약 350명, 시리아 4,000~5,000여명 활동 추정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·탈레반,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, 東투르키스탄 해방기구
- (주요테러) '14.3 윈난성 쿤밍市 기차역에서 위구르族 무장세력의 흥기 난동(170명 사상)
  - '14.5 신장 우루무치市 재래시장에서 차량 폭탄테러(122명 사상)
  - '16.8 키르키스스탄 비쉬케크 주재 중국 대사관에 차량 자폭테러(3명 부상)